발행·일본국 외무성

100-8919 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2-1 전화 +81-(0)3-3580-3311 http://www.mofa.go.jp/



힘이 아닌 법의 지배에 의거한 평화로운 바다를 지향하며

일본국 외무성



# contents



(사진:도쿄도



센카쿠 제도란 기본데이터



Part 1 일본의 센카쿠 제도 영유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주요 경위

Part 2 센카쿠 제도의 역사

 국제법상 정당한 수단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

 오키나와현의 일부로서 지배
 6

 전후 질서와 국제법 아래,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
 7



Part 3 중국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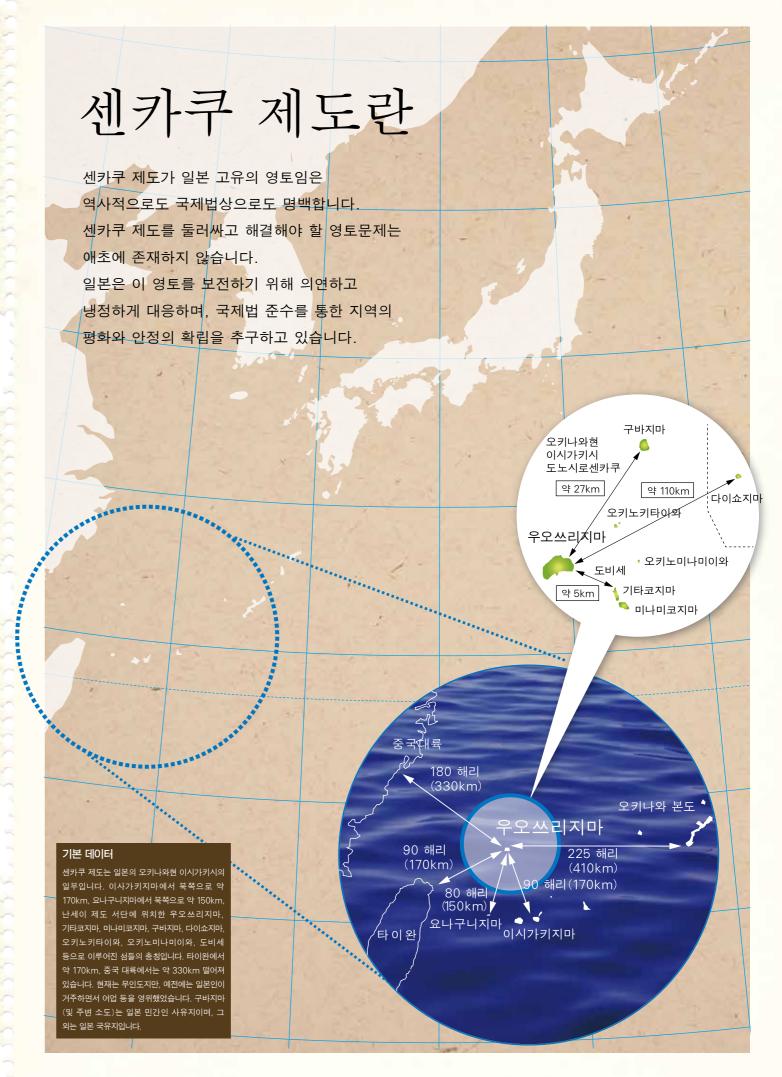
석유매장 가능성이 지적된 후 처음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중국·타이완 8

Part **4** 근거 없는 중 Part **5** 중국의 일반적

Part 4 근거 없는 중국·타이완의 주장 10

Part 5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16

표지사진:교도 통신사



# 일본의 센카쿠 제도 영유



##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주요 경위

- · 일본이 120년 이상 유효 지배
- · 1970년대 이후 중국은 주장 · 행동을 개시 · 확대

오키나와현이 센카쿠 제도의 조사에 착수. 이후, 일본은 센카쿠 제도가 무인도이며, 다른 나라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것을 신중히 확인.

중화민국 나가사키 주재 영사가 센카쿠 제도는 일본 오키나와현의 일부 라는 인식을 나타낸 감사장을 전달.

유엔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ECAFE)의 연안광물자원 조사보고. 동중국해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센카쿠 제도는 동 협정 합의 의사록의 반화 대상구역의 일부.

타이완(6월) 및 중국(12월)이 사상 처음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

12월 중국 국가해양국에 소속된 선박 2척이 센카쿠 제도 주변의 일본 영해 내로 침입.

중국의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개시·확대

일본 정부로의 소유권 이전을 구실로 중국 국가해양국 등에 소속된 선박의 영해 침입이 격화. 중국 국내의 반일 폭동 12월에는 사상 첫 영공 침범

센카구 제도 주변의 일본국 접속 수역 내에 중국 해군 함정이 처음으로 진입.

약200~300척의 중국 어선이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중국 어선에 이어 중국 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 도 영해에 침입.

1885년

1920년

1969₽

1971⋴

2008년

2012년

2016₽

1895⊭

각의(閣議) 결정에 따라 센카쿠 제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 그 후 오키나와현의 일부로서 지배.

## 1951년

샌프라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센카쿠 제도는 일본령으로 잔류. 일본 난세이 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이 시정권을 행사(제3조).

## 1992⊧

중국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을 제정. 센카쿠 제도를 중국 영토로 하는 근거 없는 독자 적 주장을 사상 처음 법률에 명문화(1958년 영해 성명에 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음).

## 2010년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 그 후 중국 어업국 등에 소속된 선박이 종래보다 높은 빈도로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출몰.

## 2013₺

##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 중국군의 '방어적 긴급조치'를 규정.

## 2021년

중국이'해경법'을시행. 국제법과의 정합성 관점에 서 문제 있는 규정의 기술 이 포함되어 있음.



고가 타쓰시로가 사업을 경영했던 가다랭이포 공장 (사진:고가 하나코 씨·아사히신문사)



사의 감사장.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 시립 야에야마 박물관 소장)



1972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지도상 직선으 로 둘러싸인 구역 내의 모든 섬이 반환된 이 대상 구역에 센카쿠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2010년 9월 센카쿠 제도 부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 선에 충돌하는 중국어선(사진:해상보안청)



국에 소속된 선박(앞 왼쪽)과 경계·감시하는 해상보안 청 순시선(오른쪽)

(사진:아사히신문사·지지통신 포토)



상보안청 순시선(사진:해상보안청)

# 센카쿠 제도의 역사



# 국제법상 정당한 수단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 오키나와현의 일부로서 지배

● 센카쿠 제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입니다. 1885년 이후 일본정부가 오키나와현 당국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센카쿠 제도는 단지 무인도일 뿐만 아니라 청나라(현재의 중국)를 비롯한 어떤 나라의 지배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했습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푯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각의(閣議) 결정을 하고, 정식으 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국제법상 정당 하게 영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식과 합치합니다.

1896년에는 민간 실업가인 고가 타쓰시로가 메이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개척을 시작. 이에 따라 많은 일본인이 센카쿠 제도에 거주하며 어업을 중심으로 가다랭이

포 공장이나 깃털 채집 등의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한때는 200명 이상의 일본인이 이 섬에서 살았으며, 또한 일본정부는 토지조사와 사업허가 등의 조치도 강구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시정 하에서도, 일본인은 경비·단속과 학술조사, 어업 등을 통해 계속 센카쿠 제도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학술분야에서는 1953년 류큐 대학에 의한 본격적인 첫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포함해, 일본정부와 오키나와현, 대학 등의 연구자들이 착실히 현지조사를 실시. 동식물의 생태 등 현지 환경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다수 축적되었습니다.





①우오쓰리지마의 토지대장(1930년대). 전전(戰前)부터 일본정부가 센카쿠 제도에 관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온 것을 알 수 있다 ②한때는 '고가 마을'이라는 촌락이 생길 정도로 많은 일본인이 생활했다 (사진:고가 하나코 씨·아사히신문사)

③1971년 류큐 대학이 실시한 현지조사. 기타코 지마에서 검은발 알바트로스를 발견했을 때의 모습(사진:신죠 가즈하루 씨)

④우오쓰리지마의 북동해안 고가 마을이 있던 자리 뒷산에 설치된 행정표식. 1969년 설치 당 시, 중국으로부터 항의는 일체 없었다(사진:니 이로 요시마 씨)





# 전후 질서와 국제법 아래,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영토는 1952년에 발효된 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센 카쿠 제도는 동 조약에 의거해 일본이 포기한 영토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 난세이 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 하에 놓였습니다.
- 센카쿠 제도가 일본 난세이 제도의 일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 1952년 류큐 정부 장전(章典)에서 위도·경도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마미 반환협정 이후인 1953년 류큐 열도 미국민 정부포고 제27호를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재차 공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센카쿠 제도는 "타이완의 일부"' 라는 등의 항의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 후 1972년 류큐 제도 및 다이토 제도에 관해 일본과 미국 간에 교환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는, 일본으로 시 정권이 반환된 지역에 센카쿠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 한 사실은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 센카쿠 제도는 전후 질서와 국제법의 체계 속에서 일 관되게 일본 영토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 1972년에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일본으로 반환된 이후,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의 경비·단속을 실시하는 외에, 민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납부와 국유지 관리 등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가 소속된 이시가키시에서는 1월 14일을 '센카쿠 제도 개척의 날'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2011년 이후로 기념식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이시가키 시의회가 센카쿠 제도의 주소지 명칭을 '도노시로'에서 '도노시로센카쿠'로 변경하는 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히 국내외에 전달하고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2018년 1월 '영토 주권 전시관'을 개관하고 2020년 1월 확장 이전해 동 전시관의 기획·순회전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밖에 지식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국제 회의 등에서의 발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2년 류큐 정부 장전을 게재한 공보



1972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해, 지도 상 직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내의 모든 섬들이 반환되었다. 이 대상구역에 센카쿠 제도 도 포함되어 있다.

6

# Part 중국의 도전



# 석유매장 가능성이 지적된 후 처음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중국·타이완

- 1968년 여름 류큐 당국은 센카쿠 제도 주변의 타이완인 불법 입역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일본정부의 요청에 입각해 미국은 타이완 당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에 타이완측은 센카쿠 제도가 타이완의 일부라는 항의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1968년 가을 일본, 타이완, 한국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의 협력으로 실시한 학술조사 결과, 동중국해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센카쿠 제도에 주목이 집중되었습니다.

1969년 5월 ECAFE 보고서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부존(賦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타이완 북동쪽 20만 kmd에 이르는 지역이다. 타이완과 일본 사이에 있는 대륙 붕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유전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지도 속에는 '센카쿠 제도' 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발표 후, 그 때까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던 중국·타이완은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처음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 1970년 8월이 되면서 타이완은 '센카쿠 제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타이완 및 중국의 영유권

에 관한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으로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1958

1970년 12월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신화사가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에 관한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을 게재한 기사를 발신했으며, 1971년 6월에는 타이완 '외교부', 1971년 12월에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 후 중국 및 타이완에서는 법령이나 행정구역뿐 아니라 교과서, 지도, 지리서 등을 개편하며 센카쿠 제도에 관한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을 꾸며냅니다. 그러나 중국이 1970년대 초까지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오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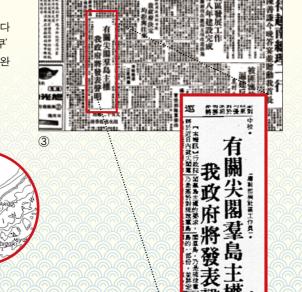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의 교섭 과정에서 중국의 저우 언라이 총리가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에게 센카쿠 제 도에 대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석 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타이완도 미국도 문제시하지 않는 다.'고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중국의 독자적 주장이 애초 부터 국제법이나 역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석유매장 에 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또, 중국은 최근 들어 센카쿠 제도와 오키나와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오키나와 트로프라고 부르는 깊은 해구를 들어일본과 센카쿠 제도 사이에는 지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해저 지형과 영유권 사이에 아무런연관성도 없다는 것은 각국의 영토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①불법 입역자를 취조하기 위해 승선하는 류큐 출입관리청 직원 (사진:히가 겐지 씨)

②동중국해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ECAFE 보고서'. '센카쿠'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중국·타이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센카쿠 제도에 관해 보도한 중앙 일보(타이완) 기사. '다오위다오' 가 아닌 '센카쿠 제도'라는 명칭 을 사용했다.(1970년 8월 13일) 1969 우오쓰리지마 센카쿠 군도 1958년에 중국의 지도출판사가 출판한 "세계지도집"과 1969년에 중국 국가

측회총국이 출판한 '중화인민공화국 분성지도'.

'센카쿠 제도'를 '센카쿠 군도'로 명기하고 오키나와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1970년 교과서에서는 '센카쿠 군도'로 표시, 또한 '국경선'은 정북방으로 뻗어 있다 1971년 교과서에서는 '댜오위타이 열서(列嶼)'로 변경. 또한 '국경선'은 북동쪽으로 휘어져 있다 9

# 근거 없는 중국·타이완의 주장



##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신성한 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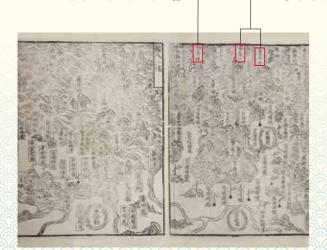
## 사실

● 중국은 센카쿠 제도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와 타이완 당국의 주장은, 중국의고문서나 지도에 센카쿠 제도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보아 섬들을 발견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먼저이고지리적으로도 중국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발견했는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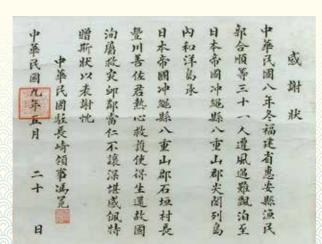
센카쿠 제도라고 하는 섬-

불분명하며, 여하튼 단지 섬의 발견이나 지리적 근접성만으로는 영유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 영역 권원(權原)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사를 가지고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역 주권을 행사한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자신들이 센카쿠 제도를 그와 같이 실효적으로 지배했었다는 아무런

\_\_\_\_ 당시 아직 편입되지 않은 타이완 부근의 섬들



주해도편(籌海圖編)



1920년 5월에 전달된 중화민국 나가사키 주재 영사의 감사장.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있다 (이시가키시립 야에야마박물관 소장)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중국이 제시하는 '고문서'는 영유권의 근거로는 볼 수 없는 것들뿐입니다. 예를 들면, 16세기 문헌인 "주해도편 (籌海圖編)"에는 당시 중국으로 편입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타이완 부근의 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에 센카쿠 제도라고 하는 섬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당시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영유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오히려 1970년대 초까지 중국측은 센카쿠 제도를 일본 오키나와현의 일부로 인정했었다는 점에서 일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919년 센카쿠 제도의 우오쓰리지마 근해에서 중 국 푸젠성의 어민이 조난되었을 때 일본인에 의해구조되자 중

화민국 나가사키 주재 영사가 구조해 준 일본인에게 보낸 감사장에는, 조난된 푸젠성 어민이 표착한 장소가 '일본제국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센카쿠 열도'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또 1950년 중국 외교부가 개최한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내부회의 기록에서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 '센카쿠 제도' 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또한 센카쿠 제도를 오키나와에 관 한 논의 속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미국 시정 하인 1950년대부터 센카쿠 제도의 일부(다이쇼지마, 구바지마)를 사격·폭격장으로 이용했습니다만, 당시 중국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게다가 1953년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센카쿠 제도를 류큐 제도의 일부라고 기재한 사실은 당시 중국측의인식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1950년 중국 외교부가 개최한 내부회의 기록. '센카쿠 제도'라는 호칭이 사용되었고, 오키나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취급되었다 (사진:지지통신)



1953년 1월 8일의 인민일보 기사 '류큐 제도 사람들의 미국점령 반대 투쟁'. 류큐 제도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7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琉

# 근거 없는 중국·타이완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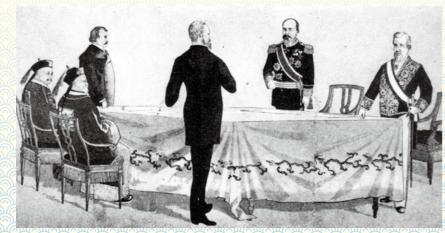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2

'1895년의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센카쿠 제도는 타이완의 일부로서 일본에 할양되었다.

## 사실

- 원래 센카쿠 제도는 1895년 시점에서 중국의 지배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배하지도 않은 땅을 할양한다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일본이 일·청 강화조약(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청나라로부터 양도받은 타이완 및 그 '부속 도서'에 대해 동 조약은 그 범위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섭기록 등 으로 보아 동 조약의 '부속 도서'에 센카쿠 제도가 포함되 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 일본은 일·청전쟁 이전인 1885년에 센카쿠 제도를 처음 조사한 이후, 청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의 지배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한 연후에 정식으로 일본 영토 로서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시모노세키 조약에 앞선 1895년 1월의 각의 결정에 따라 센카쿠 제도를 오키나와에 편입시켰습니다. 일·청전쟁 후에도 할양된 타이완 총독부의 관할구역이 아 니라, 일관되게 오키나와현의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중국 자신도 센카쿠 제도를 타이완이 아닌 오키나와의 일부로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상술한 대로입니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시의 모습 (화상 제공:Aflo)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1943년의 카이로 선언, 1945년의 포츠담 선언으로 센카쿠 제도는 타이완의 부속 제도로서 중국에 반환되었다.'

## 사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도 타이완도 1970년대 초까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의거한 타이완의 '부속 도 서' 로서의 센카쿠 제도 반환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은, 중국·타이완의 주장이 나중에 나온 것이며 근거 없 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는 센카쿠 제도의 영 유권을 변경한다는 것과 같은 기술이 없습니다. 카이로 선

언과 포츠담 선언은 모두 당시 연합국측의 전후 처리 기본 방침을 규정한 정치문서입니다. 전쟁의 결과로서의 영토 처리는 이런 정치문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평화조약을 비롯한 국제적 약속에 의거해 이루어집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며, 동 조약 하에서의 센카쿠 제도의 취급은 상기의 Part2대로입니다.



포츠단 회단(사지·마이니치시무사)



카이로 회담(사진:요미우리신문사)

# 근거 없는 중국·타이완의 주장



독자적 주장



'일본정부의 센카쿠 제도에 대한 입장과 방식은 전후 국제질서와 유엔헌장의 취지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 사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일관되게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옹호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실제 로 공헌해 왔습니다. 중국 자신도 2008년에 일·중 양국 정 상이 서명한 일·중 공동성명에서, 전후 일본이 평화적 수단 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고 있는 것을 적극 평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행보 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한 전후 국제질 서를 존중하며, 유엔헌장에 기초한 '법의 지배'라는 생각 에 따라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처해 가겠습니다.

## 「戦略的互恵関係」の包括的推進に関する日中共同声明

(2) 中国側は、日本が、戦後60年余り、平和国家としての歩みを堅持し、平和的手段により 世界の平和と安定に貢献してきていることを積極的に評価した。双方は、国際連合改革問題に ついて対話と意思疎通を強化し、共通認識を増やすべく努力することで一致した。中国側は、

日本の国際連合における地位と役割を重視し、日本が国際社会で一層大きな建設的役割を果た

(3) 双方は、協議及び交渉を通じて、両国間の問題を解決していくことを表明した

일 중 공동성명

- pursuit of the path of a peaceful country and Japan's contribution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world through peaceful means over more than sixty years
- cation on the issue of United Nations reform and to work toward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 당시, 그리고 1978년의 일·중 평화우호조약 교섭 시, 일본은 센카쿠 제도에 "보류"하기로 합의했었다.

● '보류'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중국측의 일방적인 발언들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카쿠 제도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은 좋지 않다.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타이완도 미국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1972년 정상회담 당시의 저우언라이 총리 발 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잠시 보류해도 상관없다고 생 각한다." 고 한 1978년 덩샤오핑 부총리의 기자회견 발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측으로서는 '보류' 해야 할 문제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보류'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중국측의 일방적인 발언만을

가지고 마치 일·중 간에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 제가 존재하며, 또한 그 문제를 '보류' 하기로 일본측이 동의 했었다는 등의 중국측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 또 중국이 1992년에 센카쿠 제도를 중국 영토로 기재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한 것과, 2008년 이후 중국 국가 해양국 등에 소속된 선박을 수차례 센카쿠 제도 근해로 파 견해 영해를 침입하는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보류'합의가 존재했다는 중국의 주장과도 애초 에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1972년 9월 중국·베이징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하는 다나카 가 쿠에이 총리(왼쪽)와 저우언라이 총리(사진:지지통신)



1978년 10월 도쿄 영빈관 현관에서의 후쿠다 다케오 총리(중 앙 오른쪽)와 덩샤오핑 부총리(중앙 왼쪽) (사진:지지통신)

すことを望んでいる。



#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해양 활동과 일본의 대응

● 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성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국 주변해역에서의 해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는 1974년 남베트남과 무력 충돌한 결 과, 중국이 파라셀 제도 전체를 지배. 1988년에는 베트남 이 지배하고 있던 스프래틀리 제도의 존슨 남암초를 점거. 또 1995년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던 스프래틀리 제도의 미 스치프 암초를 점거했습니다. 게다가 2009년에는 남중국 해의 광범위한 해역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이른바 '구단선 (九段線)'을 국제법상의 근거를 일체 제시하지 않은 채 처 음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도 중국은 남중국해에 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로 보이는 행동 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0년에 들어서도 중국은 '남사구' 와 '서사구'라 부르는 새로운 행정구의 설치를 발표하거나 매립 지형의 군사화를 더한층 추진하는 등 법의 지배와 개 방성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계속하며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된 군사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 및 그 기정사실화 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사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러한 중국의 해양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생 각할 수 있습니다

● 1992년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 그 속에 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남사)·파라셀(서사) 제도에 추 가하여 처음으로 센카쿠 제도도 중국의 영토라고 법률로 정했습니다. 1958년 중국이 발표한 '영해 성명'에서는 센 카쿠 제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그간 중국 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에 소속된 선박 2 척이 별안간 센카쿠 제도 주변의 일본 영해로 침입하는 사 안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퇴거 요구 및 외교 경로에 의한 항의를 통해 의연하게 대처했습 니다만, 이는 중국이 법령상뿐만 아니라 '힘' 으로써 센카쿠 제도의 현상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 2010년 9월에는 센카쿠 제도 주변의 일본 영해에서 중 국 어선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사안 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홍콩의 민간인 활동가의 불법 상륙 사안 도 발생했습니다. 또, 2012년 9월에 일본이 센카쿠 제도 가운데 세 섬(우오쓰리지마, 기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에

대한 민법상의 소유권을 민간인에서 국가로 이전한 것을 구 실로 그 후 중국 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이 악천후를 제외 하고 거의 날마다 접속 수역에 진입하였고. 월 수회의 빈도 로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6월 중국 해군전투함정이 처음으로 센카쿠 제 도 주변의 접속 수역에 진입. 같은 해 8월에는 약 200~300 척의 중국 어선이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모습을 드러낸 가 운데 중국 어선에 이어 중국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이 센카 쿠 제도 주변 영해에 침입했습니다. 8월 5일~9일 4일간 영해 에 침입한 중국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은 총 28척에 달했고 동시에 접속 수역에 진입한 중국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은 8 월 8일 최대 15척에 달했습니다.

● 2012년 12월에는 중국의 도전이 공역에까지 미치게 되었 습니다. 같은 달에 중국 정부 소속 항공기가 센카쿠 제도 주 변의 일본 영공을 처음으로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중국은 센카쿠 제도의 상공이 마치 중국 의 영공인 것처럼 표시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중국 국방 부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공해상의 공역을 비행 하는 항공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국의 절차에 따를 것을 의 무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는 중국군이 '방어적 긴급조치' 를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 칙인 공해상 비행의 자유 원칙 침해에 해당됩니다. 동중국해 는 수많은 민간항공기의 비행 경로가 되고 있어. 일본정부로 서는 민간항공의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영향의 관점에서도 큰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한국, EU 등 많은 나라 와 지역에서도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2021년 1월, 중국은 해경국의 직권과 권한을 규 정한 '해경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는 애매한 적용 해역 과 무기 사용 권한 등, 국제법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있 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으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의 정당한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 습니다. 동시에 해경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일본 해역에서 중 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일본의 주 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 중국 해경선은, 영해 침입 시에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포를 탑재한 선박이 영해에 침입하는 등 센카구 제도 주변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 경의 시도를 집요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미안전 보장조약 제5조를 센카쿠 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본 방위에 대한 코미트먼트와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의 국 제법에 따른 '법의 지배'에 의거한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관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연계해 센카쿠제도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는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 메이클즈핔드 뱅크 스카보러 암초) (중사 제도) 스프래틀리 제5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진출

## 1958년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官布

(一) 中华人民共和国的领海宽度为12海里。这项规定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的一切领土、包括 中国大陆及其沿海岛屿,和同大陆及其沿海岛屿隔有公海的台湾及其周围各岛、澎湖列岛、东沙群 岛、西沙群岛、中沙群岛、南沙群岛以及其他属于中国的岛



## 1992년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领海为邻接中华人民共和国陆地领土和内水的一带海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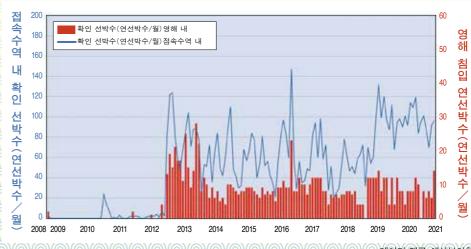
中华人民共和国的陆地领土包括中华人民共和国大陆及其沿海岛屿、台湾及其包括 钓鱼岛在内的附属各岛、澎湖列岛、东沙群岛、西沙群岛、中沙群岛、南沙群岛以及其 他一切属于中华人民共和国的岛屿。

中华人民共和国领海基线向陆地一侧的水域为中华人民共和国的内水。

1958년 영해 성명(위)과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아래)의 대비. 1958년 에는 센카쿠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1992년에 센카쿠 제도에 대한 언 급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오쓰리지마 주변에서 경계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 '스즈카'(앞) (해상자위대 초계기에서 촬영) (사진:지지통신)

## ▮중국 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의 센카쿠 주변 접속 수역 내 진입 및 영해 침입 선박 수



데이터 제공:해상보안청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우오쓰리지마(사진:내각 관방)

센카쿠 제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실제로 일본국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센카쿠 제도 주변의 일본국 영해 내에서 독자적인 주장을 펴는 해경 선박의 활동은 본래 국제법 위반이며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과 중국 측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강한 우려를, 총리와 외무대신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중국 측에 대해 전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중국 측의 행동을 강력히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 나가겠다는결의 하에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면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



외무성 웹사이트 '센카쿠 제도'



영토·주궈 저시괴